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4. 8. 12.(월) 14:00~15:2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2명 참석)

가. 교원대표 : 이영화(의장), 김미라, 이동일, 이주형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한주호

다. 조교대표 : 박한빛

라. 학생대표 : 정포근

마. 동문대표 : 이귀우, 문지현

바, 외부위원: 백성기, 김태현

4. 불참자 : 신현숙(교원대표), 신승연(학생대표)

5. 배석자 : 김명숙(기획처장)

6. 안건

가, 보고 안건

- 신입생성공센터 명칭 변경(신입생역량강화센터)

나. 심의 안건

-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2인)

1. 보고 안건 : 신입생성공센터 명칭 변경(신입생역량강화센터)

간사가 신입생성공센터 명칭 변경(신입생역량강화센터)에 대하여 설명함.

○ 제2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신입생성공센터 신설 건을 제351차 법인 이사회 (2024.5.3.)에서 심의 중 신입생 진로 코칭과 역량 강화의 역할을 포함한 기독교학교의 특징을 살린 명칭으로 구성원들과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총장에게 위임함에따라 기존 신입생성공센터 명칭을 신입생역량강화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교무위원회 통과 후 확정되었음을 보고함.

< tHB> deylus Tranu, rum,

2. 심의 안건 :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2인)

의장이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 추천 안건과 관련하여 배경 설명을 요청하고 간사가 설명함.

- 서울여자대학교 제10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이하 '총추위') 위원 구성 방안이 2024년 6월 13일 진행된 제352차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법인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기획처 기획예산팀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금번 총추위 위원은 총 18인으로 이사 2인(이사회 추천), 교수 8인(교수회 추천6인, 대학평의원회 추천2인), 직원3인(직원 대표 사무처장 추천), 학생2인(대학1, 대학원1), 동문3인(총동문회장 추천)으로 구성되었음. 교수위원 중2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 후 추천하고 추천결과는 학교법인 정의학원에서 요청한양식에 따라 작성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2024년8월27일 법인이사회에서심의예정임을 설명함.
- 2024년 6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총추위 관련 사항에 대해 교수들은 총추위 총 인원이 18인이라는 것 외 총추위 관련 세부일정 및 권한 등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제공 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수들 대부분은 갑작스런 7월 교수위원회 소집요청을 비롯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추위 위원 추천 일정이 무리라는 의견임. 총추위 구성 및 진행 방식에 대해 법인으로 부터 자료 제시 및 협조 요청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총추위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교수들 사이에 형성됨에 따라 2024년 8월 20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임. 따라서, 금일 무리하게 대학평의원회에서 총추위 위원 추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각 학내외 구성원별 위원 추천 완료 후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함.
-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총장추천위원회 교수위원은 2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교원, 학생, 조교, 직원, 외부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법인의 이해도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며 모순이 될 수 있음. 4년 전 총 장 선출 때에도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 2명을 추천함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으며 가능하다면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총 추위 위원 구성 및 인원 조정에 대한 법인의 재검토를 건의함.

<간서場> fogyulus (中部), 是此人。

- 총추위의 역할, 총장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획처장에게 요청함.
- 총추위 구성은 법인에서 새로운 안으로 준비하였으며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중 법인에서 대학으로 총추위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 총장 추천 관련 경과 및 추후 상황에 대한 법인에서 정리된 사항을 학교에서 전달 받았으며,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추위의 역할과 추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 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추위가 구성이되면 선관위의 역할을 하면서 총장 선출 일정 및 자격과 진행 방식에 대해서 총추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임. 따라서, 법인에서는 일단 총추위가 구성이 되어야 논의를 거쳐 일정과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이사회와 함께 의사 결정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추위 구성을 8월 중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총장 후보 등록 이후 총추위가 구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총추위를 우선 구성한다는 설명을 법인으로부터들었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총장 선출과 관련된 구성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총추위 위원 인원 및 구성 등에 대한의견을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 제출하면 기획예산팀에서 의견을 수합하여 법인에전달 할 수 있음. 총장 선거에 관한 의사 결정은 8월 27일 이사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될 예정임을 설명함.
- 금번 총추위 위원 추천 방식은 이전 방식보다는 점진화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총추위 이사위원 2인이 포함된 것은 총장선출과 관련된 이슈를 줄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이사회의 상당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규정 제정 후 총추위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라는 의견을 제시되고 기획처장이 이에 대해 답변함.
- 규정 제정 시 이사회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추위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것임. 규정 제정이 완료되고 그에 따른 후 속 절차를 진행함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총추위 위원 구성을 논의하 는 동시에 각각의 구성원 단위로 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차이점이 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모두 완비된 상황에서 진행함과 총추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운영함에서의 차이점이 있음을 설 명함.
- 현재까지의 총추위 위원 추천 현황을 참고사항으로 설명함. 학생은 대학생과 대학원 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학원생 위원 선정은 곧 완료될 예정이며 직원위원은 내일(8월 13일) 직원회의에서 논의 예정임. 그리고, 교수위원은 교수회의(8월 20일)에서 논의가 시작 될 예정으로 교수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사유는 법인에 전달할 예

< the legylon > (hall of , while ,

정임을 설명함. 이 귀우 동문대표의 관련 의견 : 현재까지의 총추위 위원 추천 현황을 참고사항으로 설명한 발언자가 간사임을 명시하여야 함

-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총장 선출과 관련된 최소한의 절차 또는 핵심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통로를 통해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함. 수합된 의견은 법인으로 전달될 예정이므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추후 이사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안내함.
- 의장이 교내외 각 구성원 단위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된 '서울여자대학교 총장후 보추천에 관한 규정'이 확정된 후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총장추천위원을 추천하기로 함을 발의하고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 총장추천위원회 관련 안건 심의 예정인 법인 이사회 일정 연기 요청안을 발의하고 대학평의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의장이 승인되었 음을 선포하다.

3.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전체공개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의원들이 승인하다.

의장이 15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8월 12일

이 영 의 부의 장 조 현 미 0] 동 평 의 원 일 0] 주 형 평 의 원 김 미 라 평 의 원 한 주 평 의 원 ই 박 한 빛 평 의 원 对无 정 埾 평 의 원 근 이 귀 우 평 의 원 문 지 현 평 의 원 백 성 기 평 의 원 김 태 평 의 원 현 김 홍 석 사 간